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2. Vol. 14, No. 2, 323-337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의 효과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조 현 재† 조 현 춘

경북대학교

본 연구는 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참 만남 집단의 효과와 지속성에 대한 연구다. 본 연구에 소개된 집단 상담은 대구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2001년도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에 소재 하는 제일 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참가자는 제일 종합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로 개별적으로 집단 상담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서 참가하게된 사람들이다. 집단은 주 2회 집단이었으며 총 12회기였다. 총 상담시간은 30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의 장애정도는 장애 1급에서 장애 6급까지 다양하였고, 연령과 성별도 다양하였다. 상담의 효과는 상담 전, 상담 종결 직후, 상담 종료 4개월 후 우울과 자존감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참가자들의 자존감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참가자들의 우울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추후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자존감은 상담 종결 4개월 후 까지 유의미한 차이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나 우울은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주요어 : 장애인 집단상담, 참만남 집단, 우울, 자존감

조현재는 경북대학교 직업능력 개발센터에서 선임 상담원으로 조현춘은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조 현 재,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전화 : 016-875-2879 E-mail : wind000@unitel.co.kr(000은 숫자)

인간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고 이끌어 주는 상담의 역할이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Corey, 1995). 우리나라의 집단 상담분야도 1964년 한국 카운셀러 협회의 제 1차 연차대회에서 전문적 입장에서 최초로 언급된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집단상담 활동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상담활동이 개발되고 실시되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기업의 관리직 사원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과 인간관계훈련이 활발히 실시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을 살펴보면 1991년 정부에서는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9년부터 '청소년 상담원'으로 개칭함)을 개설하여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활동과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각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실시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런 질적 발전과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집단 상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담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려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상담활동의 주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한 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 연구이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1981). 보건복지부의 1997년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의 등록된 장애인 숫자는 425,064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숫자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5년마다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서 전체 장애인 수를 추정하는 데 1995년 표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재가(在家) 장애인 숫자는 1,029,937명이다(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1995). 이 자료를 통해보면 전체 인구의 2.5%가 장애인인 셈이다. 장애를 가지게 된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질병이나 사고 등의 후천적 요인이 88.1%나 된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하며 누구도 장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 우리와 밀접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장애인 집단은 그들이 가진 심리적, 정신적 한계와 그것 때문에 겪게되는 경제적 좌절들을 고려하면 어떤 다른 집단보다도 전문적인 심리서비스가 절실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1995년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장애인의 52.9%가 현재 상황이 불만스럽다고 대답하였으며 30%는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한 경우가 77.5%이고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애인도 47.2%나 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장애인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서 심리적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집단의 사회 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달에 한번만 집밖으로 외출한다는 장애인이 17.3%, 월 2,3회인 경우가 36.6 %, 그리고 일년에 2,3번 밖에 외출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6.6%나 되었다. 이것은 타인들과의 바람직한 교류가 인간형성의 기본이 되며 행복한 가정과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원구, 정태일. 1984)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우려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위의 자료를 정리해 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 정상인들의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사회적인 활동도 극히 제한적으로 경험하는 장애인 집단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이 어느 다른 집단보다도 절실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100만을 넘어서는 장애인 집단의

심리적 안녕에도 전문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인 집단을 위한 집단 상담은 이전의 집단 상담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집단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 상담은 신뢰로운 상담 관계를 발달시키기 어려우며 그것은 상담의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edersen, 1994). 다양한 집단과 집단 상담을 하려면 집단원들의 독특한 요구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야하며 각 집단에 맞는 방략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Sue, 1990). 본 연구는 그런 전문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집단 프로그램의 종류는 참 만남 집단이다. 참 만남 집단은 실존주의와 인본주의적 입장을 배경으로 탄생되었으며(Lieberman, Yalom & Miles, 1973; Golembiewski & Blumberg, 1973) 상담자의 태도와 신념을 강조하는 Rogers가 만든 모형과, 집중적인 상담을 강조하는 마라톤 집단의 Stoller의 모형, 그리고 신체적 활동과 에너지의 이완을 강조하는 Schutz가 발전시킨 개방적 참 만남 집단이 있다(Schutz, 1972). 참 만남 집단의 기본 정신은 개방과 정직, 자기각성, 자기책임성, 신체에 대한 각성 그리고 지금-여기에서의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다. 참 만남 집단은 집단 경험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참 만남 집단에서 추구하는 개방과 정직, 각성, 책임성, 신체 감각의 수용, 지금 현재의 느낌에 깨어있는 것은 인간 관계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집단의 형식을 참 만남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참가자들의 신체기능상의 제한점과 집중적 프로그램을 감당하기 어려운 체력적 한계 때문에 Rogers형의 참 만남 집단을 기본으로 하였다. 집단참가자들은 사회복지사의 권유를 받고 참가하게된 지체 장애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장애등급은 지체장애 1급에서 지체장애 6급까지 다양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참 만남 집단과 동일한 부분도 있으나 참가자의 신체적 제약과 심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수정 적용한 부분도 있다. 먼저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집단 규칙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다. 집단 참가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Corey, 1995) 왜곡되지 않은 정직한 마음의 나눔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단원들 간의 정직한 피드백의 교환은 인간관계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핵심요소이다(Morran, Stockon & Bond, 1991). 두 번째 집단 규칙은 집단에 참가하는 시간동안 생각보다는 느낌에 치중하는 것이다. 생각은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도구로 이용되기 쉬우며, 인간에게 가장 솔직한 부분은 사고가 아니라 개인의 느낌이기 때문이다(Schutz, 1972). 세 번째 집단 규칙은 지금-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는 기억되고 인출되는 과정에서 경험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상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지금-여기를 강조한다는 것이 과거에 배타적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에 생생하게 재경험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현재의 체험이기도 하다. 본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중에도 자신의 장애와 연관된 부정적 과거 기억들이 생생하게 노출 될 때는 그때의 감정을 충분히 재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지금-여기를 집단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Yalom(1975, 1985)은 상담집단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축소판이기 때문에 지금-여기의 경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나누는 활동들이 집단 참가자들에게 대인관계를 통한 학습, 피드

백, 의미 있는 자기노출, 정화, 자기이해, 사회화를 촉진시켜준다고 했다. 이것은 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것은 집단의 응집력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지금-여기의 노출과 과거사건의 노출이 집단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Slavin(1993)의 연구결과를 보면 지금-여기사건의 노출이 집단 응집성을 더 유의하게 높여줌을 보여주었다. Yalom(1985)은 지금-여기의 첫 단계는 참가자들이 외부사건을 논의하지 않고 집단 내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상적 과거사건이 아니라 현재 마주하고 있는 다른 참가자에게 집중할 때 제대로 지금-여기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집단 활동 중에는 항상 다른 참가자들에게 시선을 둘 것을 요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참 만남 집단의 기본 원칙 속에서 지체장애인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수정해서 운영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전통적 참 만남 집단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이유는 참가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이 일반인 집단이나 대학생집단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실례로 집단 참가자중 2명은 1급 지체장애인인데 1급 장애는 두 손이나 두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거나 반 이상이 절단된 사람을 의미한다. 나머지 사람들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들 이였다. 이런 이유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신체적 활동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의 긴장을 해소시키고 서로간의 응집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집단의 응집력은 중요한 치료요인이기도 하다(Burlingame & Fuhriman, 1990) 이 한계는 복지관의 협조 하에 상담 3회기와 4회기 사이에 야외견학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서로간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참가자들의 신체기능의 한계는 참 만남 집단의 일반적 형식인 집중적 상담 프로그램을 하기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신체적 한계를 고려해서 주 2회 집단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다. 집단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부딪힌 또 다른 어려움은 상담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이었다.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참가자 명단과 그들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참가자들 상당수가 상담을 일종의 친목 모임과 같은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집단 상담에 관련된 연구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사실 중 하나가 참가자가 상담의 성격이나 내담자의 역할에 관해서 잘 인식하고 있을 때 상담 초기의 상담과정이나 상담의 최종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Burlingame & Fuhriman, 1990; Meadow, 1988). 그래서 집단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개별적인 사전 면담을 통하여 집단상담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려하였으나 개별적인 차량지원(혼자서 오지 못하는 참석자가 4명이 있었음)이 힘들었다. 그래서 사전 회기를 별도로 마련해서 상담자의 역할, 내담자의 역할, 상담의 규칙, 상담회기내의 행동에 대한 선택권 등 상담의 기본적인 내용을 인식시키는 준비 단계로 사용하였다.

그 다음은 참가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 점을 고려하였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우울 검사와 자존감 검사를 사전에 실시해본 결과 자존감도 낮고 우울 경향도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 실태 조사보고서의 사회활동정도를 감안해 볼 때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5)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힘든 참가자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상담 초기인 4회까지는 초반 30분 동안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지금-여기에서의 생생한 자기 느낌을 표현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집단을 구조화하는 것과

비구조화 하는 것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Shinn, Rosario, Morch, & Chestnut, 1984). 구조화된 집단 상담은 활동 계획이 미리 제시되며 집단 참가자들이 그 계획에 맞추어 활동하게 되는 상담 형식으로 내담자보다는 상담자 중심의 집단 상담이다. 예정된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말이 적은 참자가들에게는 더 효과적이다(Munro & Bach, 1975). 그러나 참가자의 심리적 흐름과 맞지 않을 때에는 작위적인 상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구조화된 집단은 내담자들이 깊이 있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담자가 나서서 이끌어 가는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상당히 힘든 경험이 될 수 있다. 참 만남 집단은 일반적으로는 비구조화 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다(Rogers, 1970). 그러나 참 만남 집단의 경우에도 완전한 비구조화 집단보다는 비구조화된 집단에 약간의 구조화를 가미한 집단이 집단 과정에 관여하는 깊이가 깊다(McGuire, Taylor, Broome, Blau & Abbott, 1986)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실제로 이 방법은 처음에는 내담자가 부담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담 후반기에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도록 자기 장점 찾기를 하였는데 일반인 집단에 비교해서 참여도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그 내용은 일반인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여러 가지 장점을 잘 찾아내는데 비해서 내용의 폭은 좁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을 실시 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장애인 프로그램의 한계와도 관련이 있다. 기존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은 공동 작업장 운영이나 직업 재활 같은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을 타인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기변화를 이끌어 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적 심리 활동에 소외되어있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 활동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참 만남 집단의 효과와 지속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대 상

상담자

본 연구의 상담자는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50회 이상 집단 상담의 부리더로 참가하였으며 대학생집단, 일반인 집단, 상담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10개이상의 집단을 리더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조 상담자는 상담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남학생이다.

내담자

집단의 참가자들은 대구에 소재 하는 제일 종합 사회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중에 사회 복지 팀장의 집단 상담 참가 권유를 받고 상담에 참가한 지체장애인 12명이다. 성별은 남자 6명 여자 6명이며 연령은 30대에서 50대까지로 다양하였다. 지체장애등급은 장애가 심한 1등급부터 6등급(1급 지체장애 - 2명; 2급 지체장애 - 3명; 3급 지체장애 2명 : 4급 지체장애 1명; 5급 지체장

애 1명; 6급 지체장애 - 3명)까지 다양하였다. 집단은 매주 화, 토요일에 상담을 하는 주 2회 집단이며 총 12회기의 길이로 진행되었다. 총 상담 시간은 30시간이다.

도 구

본 상담의 효과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한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와 Beck(1967)이 개발하고 이영호(1993)가 표준화한 우울증 척도 한국판(BDI 한국판)으로 측정하였다.

자아 존중감 척도

개인의 자아 존중감 척도는 자기존중정도와 자아승인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다. 척도의 내용은 긍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 식 척도이며 긍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거의 그렇지 않다' 에서 '4-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이고, 부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지만 채점할 때는 반대로 처리한다.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9이다.

BDI 한국판

임상적인 우울 증상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써 우울증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척도의 내용은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등 21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점수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 나올 수 있다. Bumburry, Oliver 및 Mcclure (1978)에 따르면 정상인의 평균 BDI 점수는 3. 94이며, 가벼운 우울증의 점수는 14.19, 심한 우울증의 점수는 22.8을 기준으로 본다.

결 과

심리검사는 집단 상담 전과 집단 상담 실시 후 그리고 4개월 후의 추후검사로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집단에 참가한 사람은 12명 이였으나 입원이나 건강상 이유로 2/3이상 참가하지 못한 4명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집단 상담이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먼저 집단 상담이 내담자들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추후 검사결과의 기술 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고 그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PSS의 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사전, 사후, 추후 자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8.98$, $p < .000$). 유의미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사전, 사후, 추후검사간 대비분석(comparis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표 1. 사전, 사후, 추후자존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사전자존감	23.87	3.64	8
사후자존감	29.62	2.87	8
추후자존감	30.62	2.97	8

표 2. 사전, 사후, 추후자존감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유의 확률
집단간	212.33	2	106.16	31.62	.000
집단내	47.00	21	3.357		
전 체	259.33	23			

표 3. 사전자존감과 사후자존감의 대비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유의 확률
집단간	132.25	1	132.25	33.98	.001
집단내	23.75	7	3.39		

표 4. 사전자존감과 추후자존감의 대비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유의 확률
집단간	182.25	1	182.25	34.71	.001
집단내	36.75	7	5.25		

검사간의 분석 결과는 표 3에, 사전-추후검사간의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상담전과 상담후의 자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3.98$, $p < .001$). 즉 장애인들은 집단 상담을 통하여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상담전과 상담종결 4개월 후의 자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4.71$, $p < .001$). 즉 상담 이전과 비교해서 집단 상담 종결 4개월 후까지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있으며 상담의 효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 상담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집단 상담이 내담자들의 우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추후 검사 결과의 기술 통계치를 표 5에 제시하였고 그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PSS의 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사전, 사후, 추후우울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사전우울	19.25	7.68	8
사후우울	12.00	4.17	8
추후우울	14.00	9.33	8

표 6. 사전, 사후, 추후우울의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유의 확률
집단간	224.33	2	112.67	3.99	.043
집단내	393.67	21	28.12		
전 체	618.00	23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사전, 사후, 추후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99$, $p < .05$). 유의미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사전, 사후, 추후검사간 대비분석(comparis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검사간의 분석 결과는 표 7에, 사전-추후검사간의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상담전과 상담후의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7.52$, $p < .05$). 즉 장애인들은 집단 상담을 통하여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상담전과 상담종결 4개월 후의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상담 이전과 비교해서 집단 상담 종결 4개월 후에는 우울의 감소가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0 수준의 유의수준과 4개월 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7. 사전 우울과 사후 우울의 대비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유의 확률
집단간	210.25	1	201.25	7.52	.05
집단내	195.75	7	27.96		

표 8. 사전 우울과 추후 우울의 대비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유의 확률
집단간	110.25	1	110.25	3.59	.1
집단내	214.75	7	30.68		

집단상담의 회기내용분석

집단 상담 속에서 각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된다. 즉 집단상담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참가자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8단계로 정리해 보았다.

배회 및 모색단계

집단 의미를 모색하거나 집단에의 참여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하는 단계. 이런 경우, 집단참가자들에게는 어색한 침묵, 예의바른 피상적 교류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발언의 순서 및 진행 방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이번 상담의 1 회기가 여기에 속한다. 집단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피상적인 대화를 하게된다. 대화의 내용은 주로 자신이 장애를 입었던 사연이나 장애인으로서의 어려움과 연관된 내용을 표현하는 일이 많았다. 이때 예측하지 못했던 반응이 있었는데 장애인으로써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참가자가 있었다. 소수이긴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장애인 집단을 리더 하는 상담자가 유념해야할 문제이다. 자기표현의 빈도는 일반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었다.

개인적 표현 및 탐색에 대한 저항 단계

집단 원들이 사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내면세계를 노출하지만 집단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며, 듣는 사람들도 발언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다.

본 상담의 2, 3회기에 여기에 속한다. 언어적인 표현도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아직 마음속을 내보이는 것 자체가 힘들고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반 사회 속에서의 친목 모임과 같이 우선 편하게 어울리는 분위기도 존재했고, 새롭고 힘들기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물론 전자의 욕구가 더 강한 편이였지만 후자의 분위기로 이끌기 위해서 상담자의 개입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다. 장애 때문에 신체적 불편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있어서 최대한 편한 자세로 상담에 참여하게 하였다. 상담자와 다른 참가자의 관심을 끌고자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상담자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내담자의 의존심을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문제였다.

과거의 부정적 감정의 표명단계

집단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과 여기에서의 느낌과 감정을 주로 표현하도록 권유받지만 초반부에는 일반적으로 말하기 쉬운 과거사를 이야기하게된다. 그리고 느낌을 표현할 때도 처음에는 집단 상담 지도자나 다른 참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먼저 말하기 쉽다. 즉 이 단계에서는 지금과 여기의 정확한 의미나 그 표현방법이 서

툴기 때문에 평소 습관대로 과거사나 부정적 감정의 표명에 치우치게된다.

이번 상담의 4, 5회기에 두드러졌던 반응이다. 감정표현에 치중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많은 개입을 하게 됨에 따라 상담자의 의도(감정의 진솔한 교류)에 저항하는 반응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었다. 처음 말을 꺼낼 때 아주 조심스럽고 주저하면서 표현했던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 상담자가 긍정적으로 받아주자 그 사실 자체에 놀라워하기도 하였고 감정표현후의 후련함과 시원함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상담하면서 놀랐던 것은 장애인 대부분이 부정적 표현을 하기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이 이제까지 장애로 인하여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경험들 속에서 가지게된 심리적 위축감이 부정적 표현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그런 부정적 표현을 할 수 없게 만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만큼 더 필요한 경험이므로 일반인 집단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부정적 느낌의 인식과 적절한 표현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미있는 개인적 관심사의 표현단계

초기의 당황스러움 저항 및 집단 밖의 이야기와 비판적 느낌들이 어느 정도 표현된 후 서서히 개인적인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즉, 참여자들은 집단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고 소속감을 자각하게 되며 이제는 자신의 관심사나 개인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놓게 된다.

이번 상담의 6, 7회기가 여기에 속한다. 집단원들은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 신뢰감들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상담이 없는 날에는 서로 안부 전화를 하기도하는 등 아주 친숙한 사이가 되어갔다. 그러나 서로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일반인에 비해서 많지 않은 사회활동 때문에 흔하지 않게 얻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고자하는 욕구가 진솔한 표현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같았다. 8회기는 야외상담을 하였는데 이것이 부정적 표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집단참가자에 대한 감정의 표현단계

집단 내에서 참가자들이 서로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게 된다. 집단에 대해 안심을 하고 참가자들간의 그리고 상담자와의 상호 신뢰의 분위기가 만들어짐에 따라 집단참가자들이 표현한 느낌이나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이 개입된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관련된 감정을 표현한다.

이번 상담의 9회기부터 이런 표현이 시작되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이전에는 마음에 묻어두고 하지 않았던 감정들을 진솔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참가자에게는 당황스럽고 낯선 경험이 될 수 있으나 관계의 질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한다는 것은 돌려서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함을 의미한다. 즉 내 생각이 잘못되었겠지 혹은 말하려니까 두렵다 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방어적 태도의 분해단계

집단 내에서 점차로 타인들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고 참여자들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과거에는 당연히 예의 바른 행동으로 여겨졌던 재치 있는 언행 및 침묵 등이 이제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즉 이 단계에서는 일상적인

반응양식이나 가면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이 이루어진다.

이번 상담의 7, 8회기에도 이런 표현이 언급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교류되기 시작한 것은 9회부터이다. 특히 상담 초기에 아주 소극적이였던 참가자가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할 때에는 상담자가 시원함을 느낄 정도였다. 일반인 집단과의 차이점은 상담 후반기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기본적 만남 및 친밀감의 형성단계

참가자들의 솔직한 자기공개와 충격을 받은 동료들을 돕는 분위기가 뚜렷해진다. 예컨대 나도 당신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절실하게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는 종류의 반응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이 진실로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애정으로 바뀌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번 상담에서는 10회기부터 이런 반응이 나왔다. 상대가 자신에게 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것은 보고 부정적인 표현을 한 사람이 자기의 속뜻을 왜곡하지 않고 좋게 받아들여준 그 사람에 대한 진한 애정을 느끼며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장면이 그것이다.

집단에서의 행동변화단계

참여자들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 시작함에 따라 서로 온정과 신뢰감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어조와 몸짓이 집단을 처음 시작할 때와 사뭇 달라지고 집단분위기도 보다 개방적이고 자율적이게 된다. 예컨대 집단상담을 시작하기 전보다 우울증이 줄어들었으며 이제는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라고 밝은 표정으로 보고하는 참여자들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상담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내담자가 있다. 다리가 불편한 참가자였는데 신호등을 건너는 것을 아주 두려워해서 바로 앞의 길을 두고도 신호등 이 없는 길로 돌아서 다녔는데 상담에 참가하면서 신호등을 6번식이나 반복해서 건너봤다는 말에 전 참가자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장애인 집단에 대한 참 만남 집단의 효과와 그 지속성에 대한 연구다. 연구의 출발점은 상담의 필요성은 어느 집단보다도 높으나 상담 서비스에는 비교적 소외되어있는 장애인 집단에 대한 전문적 상담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부터다. 개인적으로 느끼던 관심에 적절한 계기가 마련되어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을 실시하게 되었고 상담 종료 4개월 후 그 효과의 지속성도 알아보았다. 효과의 측정은 자존감 검사와 BDI 검사를 사용하였다. Brown 과 Mankowski(1993)에 따르면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으로 심리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낮은 자존감을 정신 병리의 핵심적인 요인(Rugel, 1995)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내담자들의 자존감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상담전과 상담 후를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집단상담을 통하여 자기존중정도와 자아승인 정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참가자들이 가지고있는 부정적 자존감의 뿌리가 변화되어질 수 없는 신체적인 한계와 연관되어있고 상당기간 지속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런 유의미한 차이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개월 후

의 추후검사에서도 증가된 자존감이 유지되고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상담 종료 직후의 자존감 평균치(29.63)보다 오히려 더 증가한 결과(30.63)를 보인 것은 내담자들의 자존감 상승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우울 검사 결과는 상담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4개월 후의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전의 평균 19.25보다 낮은 14점을 보였다. 이 수치는 상담 직후의 평균(12점)보다 높아진 것으로 감소된 우울 상태가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우울 집단의 선발기준이 보통 16점임을 감안하면 14점이라는 것도 호전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자존감 검사결과처럼 사전결과와 추후결과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 Teasedale & Dent(1987)는 우울에 대한 차별적인 활성화 가설에서 한번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부정적 경험을 할 때 부정적인지 과정이 활성화되어서 우울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경제적, 신체적 한계 속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부정적 상황에 자주 접하게 될 것임을 감안할 때 우울에 관해 선 좀 더 지속적인 심리 서비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일반적인 집단 상담인 경우 추후모임을 가지기가 용이하지 않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은 추후모임을 가지기가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추후모임은 참가자들은 집단에서 배운 내용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데 있어서 부딪히는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인 집단 상담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부터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모임의 장소도 상담 활동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장애인집단 상담의 경우는 한 달에 몇 번씩은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기술교육이나 물리치료, 체력 단련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주 모일 수 있으며, 상담활동에도 적합한 활동실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본 연구자도 집단에 참가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의 추후 집단 활동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 집단상담은 상담 초기와 중기에서 일반인집단과 다른 점을 경험하였으나, 상담후기의 과정을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담 초기에 가장 뚜렷하게 경험한 것은 참가자들의 소극성이었다. 침묵이나 소극적 참여는 집단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일반인 집단의 경우 초반의 소극성은 몇 가지 활동 등을 통해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집단에서는 몇 몇 참가자의 경우 참여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상담 초반기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기표현을 하도록 구조화한 전략이 이런 소극성을 버리고 집단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담 중기에는 솔직한 자기표현과 피드백, 직면 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Dies(1983a)는 집단의 리더와 구성원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권한을 부여받기 전까지는 지나친 직면개입을 삼가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번 상담에도 직면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적절치 못한 직면도 있었다. 이때 직면에 대한 저항 형태가 일반인 집단과 다른 측면을 보였다. 일반인 집단에서의 성급한 직면은 거부반응을 통해서 즉각 감지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 집단에서는 겉으로 두드러진 저항이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도의 저하로 나타났다. 직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좀 더 민감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소개된 집단 상담의 결과가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 이여서 이 결과를 전체 장애인 집단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집단 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자료분석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상담의 성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쓴다면 좀 더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집단 상담과 연관된 사전 연구자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체계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이다. 장애인 집단상담의 필요성 때문에 집단상담을 실시하였지만 좀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상담장면에서 주목받지 못한 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것이다. 상담의 필요성은 어느 집단보다도 높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주 2회의 형식으로 상담의 초반기에 구조화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참 만남 집단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집단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 상담은 신뢰로운 상담 관계의 발달과 상담의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edersen, 1994). 그래서 지체장애인이라는 집단의 특성에 맞추어서 참 만남 집단을 수정 운영하였으며, 집단 상담 결과 우울, 자존감에 있어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상담 초반 4회 기동안 최초 30분 정도를 순서대로 자기표현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집단 활동에 소외되는 사람 없이 참가자들이 집단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담 중 후반기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예상되어서 이 규칙을 배제하였으며 이후에는 자발적인 표현들이 이어졌다. 다양한 형태의 집단상담을 시도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계층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형태의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내담자들의 요구에 맞도록 치료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앞으로 집단상담의 중요한 과제이기도하다(Dies, 1992).

마지막으로 상담종결 직후의 효과 뿐 아니라 지속성에 대한 연구도 하였다는 것이다. 처치효과의 장기적인 관리와 유지는 최근 미국심리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다(김계현, 2000). 상담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결직후의 효과뿐 아니라 그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려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1998). 심리척도 핸드북. 서울: 학지사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연구. 서울: 학지사

박옥희 (1998).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보건복지부 (1981). 장애인 복지법. 서울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현춘, 조현재 역 (1996)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조현춘, 조현재, 문지혜 역 (2002) 성격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조현춘, 조현재, 이희백, 천성문 역 (1999) 집단 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 프레스

한국 카운셀러 협회 (편) (1985), 변천하는 사회, 성장하는 청소년(한국 카운셀러 협회 20년사). 한국 카운셀러 협회.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1995),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995, p. 110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412-430

Burlingame, G. M., & Fuhriman, A. (1990). Time-limited group therap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8(1),* 93-118

Corey, G. (1995).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4th ed).* Thomson publishing.

Dies, R. R. (1983a) Bridging the gap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in group psychotherapy. in R. R. dies & R. MacKenzie (Eds.), *Advances in group psychotherapy: Integrating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Group Psychotherapy Association Monograph Series) (pp. 27-28).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Dies, R. R. (1992). *The future of group therapy. Psychotherapy, 29(1),* 58-64.

Lieberman, M., Yalom, I., & Miles, M. (1973). *Encounter group: First facts.* New York: Basic Books

McGuire, J. M., Taylor, D. R., Broome, D. H., Blau, B. I., & Abbott, D. W. (1986). *Group structuring techniques and their influence on process involvement in a group counseling training grou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270-275

Mead, W. R. (1977). *"Feed back : A hoe to primer for T-group participants, "in R. T. Golembioski, Sensitivity Training and the laboratory approach.* Itasca, F. E. Peacock Publisher.

Meadow, D. (1988). Preparation of individuals for participation in a treament group: Development and empirical testing of a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38*(3), 367-385

Morran, D. K., Stockon, R., & Bond, L. (1991). Delivery of positive and corrective feedback in counseling grou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38*(4), 410-414.

Munro, J. N., & Bach, T. R. (1975). Effect of time-limited counseling on client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395-398.

Pedersen, P. (1994). *A handbook for developing multicultural awareness* (2nd ed.).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Rogers, C. R. (1970). *Carl Rogers on Encounter group.* New york: Happer & Row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ugel, R. P. (1995). *Dealing with the problem of low self-esteem: common characteristics and tretment in individual, marital/family and group psychotherapy.* Charles c. Thomas

Shinn, M., Rosario, M., Morch, H., & Chestnut, D. E. (1984). Coping with job stress and burnout in the human serv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64-876.

Slavin, R. L. (1993). The significance of here-now disclosure in promoting cohesion in group psychotherapy. *Group,* 17(3), 143-149

Slife, B. D. & Lanyon, J. (1991). Accounting for the power of the here-and-now: A theoretical revol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41 (2), 145-167.

Sue, D. W. (1990). Culture-specific strategies in counseling: A conceptual framework.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1*(6), 424-433.

Yalom, I. D. (197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2nd ed.). New York: Basic Books.

Yalom, I.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3rd ed) New York: Basic Books.

원 고 접 수 일 : 2001. 12. 2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5. 29
게 재 결 정 일 : 2002. 6. 14

KCI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2. Vol. 14, No. 2, 323-337

A Study of Effect and Durability of the Handicapped Group Counseling Program

Hyun-Jae Cho Hyun-Choon Ch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a group counseling program about the handicapped has effects and their durability. The group counseling which we reported in this article is a welfare program of 'The Community Chest of Daegu' and conducted in 'The Family Welfare Association of Daegu'. The participants of group counseling were participated in the group counseling by social worker. Group counseling was held twice a week, 12 sessions, 30 hours. Handicap grades of participants were from 1st grade to 6th grade. Their age and sex were diverse. The group underwent tests(as it were Self-Esteem scale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 three times(pre/post/four month lat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 increase on Self-Esteem at right after the group counseling than before group counseling. The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 decrease on Depression at right after the group counseling than before group counseling. We analyze all(pre/post/later) test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crease effect of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last four month later but the decrease effect of depression was not significantly last four month later.

Key Words : the handicapped group counseling, encounter group, depression, self-esteem